

# 漢文學에서의 中國接觸

金 泳\*

## 차 례

- |                        |                        |
|------------------------|------------------------|
| 1. 서언 : 한중의 문화교류       | 3. 최근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동향 |
| 2. 연암의 중국문화 접촉과 《熱河日記》 | 4. 결어 : 주체적 세계화의 길     |

## 1. 서언 : 한중의 문화교류

지금 중국에는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 옷과 신발,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폰, 엘지전자의 에어컨 등 한국상품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다. 이것을 중국 신문에서는 “韓流”라고 지칭하면서 중국 젊은이들의 ‘한국 따라하기’에 대한 특집을 마련하고, 북경의 유명 공연장이나 체육관에서는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공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한국 바람이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초청 공연 같은 고급예술분야로 파급되고 있고,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통시대에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수용하기에 힘들었다면, 이제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선 중국이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한국 배우기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접촉에서 일방적으로 그 문화를 수용하였지만, 이

---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일방이 한쪽에 영향을 주었다는 고정된 틀로는 해명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통시대에 한국문학이 중국문학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北學한 것은 당시의 보편적 추세이기도 하려니와, 우리 선인들의 우리 문학에 대한 새로운 갱신과 발전에 대한 열의의 소산이었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중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문화의 다른 문화의 접촉 문제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의 해명과 함께 각 문화의 공통성과 개별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교문학 분야에서는 전자에 관심을 갖는 연구를 영향연구라고 하고 후자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대비연구라고 한다. 근래의 문화인류학이나 비교문학 연구에서는 전파론적 입장에 선 영향연구보다는 개별 문화권이 갖는 독자적 자율성과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가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영향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단순히 표면적인 영향관계 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이 다른 문화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되고 창조적으로 발전했는지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이 학술발표대회에서 본 발제자는 필자가 전공하는 한문학 분야에서의 중국접촉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중문학의 오랜 역사와 교류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간단하게 거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현 단계에서 해외문화와 한국문학의 바람직한 교류와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일정한 시사를 얻기 위해서 논의의 편의상 근대 이전에는 燕巖 朴趾源(1746 -1805)의 중국문화 접촉의 경우를, 오늘날에는 역으로 중국학자들의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동향을 간략히 검토해보려고 한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세계화의 명암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세계화가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조류가 된 지금, 전통시대의 한 탁월한 문인의 해외문화 접촉의 경험을 재음미하고, 현대 중국학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점검해보는 것은 한중문화교류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약간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 2. 연암의 중국문화 접촉과 『熱河日記』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 갔던 18세기 후반은 乾隆皇帝의 治世가 계속 되던 시기였다. 淸나라가 대륙을 평정해 다스린 지 100여 년이나 지나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때였다. 연암은 설레는 마음과 천하대세를 전망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가 그곳의 주거·성곽·도로·수레제도 및 생산도구 등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열하일기』의 전반부에는 중국의 기술문명과 문물제도에 대한 세밀한 조사보고 및 그것의 현실적용 방안에 대한 논설이 많이 실려 있다.<sup>1)</sup>

그는 먼저 유통경제의 근간이 되는 도로와 운송수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고 수레가 운행되지 않아 모든 재화가 잘 유통되지 않고, 자급자족의 경제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개탄하여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제 천릿길을 오면서 날마다 수없이 많은 수레를 보았으나 앞 수레와 뒷 수레가 언제나 한 자국을 도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쓰지 않고도 같이 되는 것을 一轍이라 하고 뒤에서 앞을 가리켜 前轍이라고 한다. 城 문턱 수레 바퀴 자국이 움푹 패어서 홈통을 이루니 이는 이른바 ‘城門之軌’라 한다. 우리 나라에도 전혀 수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퀴가 온전히 둥글지 못하고 바퀴자국이 틀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에, “우리 나라는 길이 험하여 수레를 쓸 수 없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인가. 나라에서 수레를 쓰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다. 만일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을 저절로 닦이게 될 테니 어찌하여 길저리의 좁음과 산길의 험준함을 걱정하리요.”<sup>2)</sup>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우선 유통경제

- 
- 1) 연암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서는 李家源선생님의 『燕巖小說研究』(을유문화사, 1965) 이래 수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필자도 연암의 선비의식과 독서론 그리고 『열하일기』에 대해서 몇 편의 글을 쓴 바 있다. 여기의 논의는 필자가 기왕에 쓴 즐고 「연암의 선비의식과 독서론」(『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과 「박지원과 열하일기」, 『민족문화사강좌』 상, 창작과비평사, 1995)에 의지했음을 밝힌다.
  - 2) 李家源역, 『熱河日記』(대양서적, 1975), 189~190쪽.

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를 정비하고 수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암은 이러한 문제를 『열하일기』 후반부에 실린 걸작 <허생전>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우리 조국은 배가 외국으로 운행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잘 다니지 않는 까닭에 백가지 物貨가 그곳에서 생산되어 그곳에서 소비되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매점매석이 횡행할 수 있음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암은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볼 때마다 그것을 조선 현실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늘 염두에 두었고, 그래서 새롭고 신기한 기술문명에 대한 상세한 관찰 기록과 함께 그것을 조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틈나는 대로 『열하일기』에 마련해두고 있다.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이와 같이 중국의 발달한 문물에 대한 견문만 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물질문명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중국의 지식인과 민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하는,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다. 그래서 연암은 될 수 있으면 중국의 여러 선비들과 만나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고, 민중들의 동향에도 예민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연암이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궁인 피서산장이 있는 熱河에 체류할 때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는 王民皞·尹嘉銓·鄒畬是 같은 지식인이 있었다. 연암이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중국의 고금 음악과 역대 治亂 등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었다. 연암은 이러한 학문적 대화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당시 청조 학계에 주자학에 대한 비판과 고증학풍이 성행하는 사실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黃教問答>의 서두에서 당시 중국의 학풍을 매도하는 추사시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즉 당시의 학자들은 理氣니 性命이니 하는 따위의 강론만 할뿐 실사와 실무에는 전혀 무능한 이학 선생이거나 케케묵고 고루하기 짝이 없는 도학군자로 이설을 내세우며 남의 학설이나 공격하는 데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사시는 “오늘날의 유자들이야말로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섭고말고요. 저는 평생 동안 유학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극언까지 하였다. 그런데 비해 추사시를 데려온 왕민호의 주자학 비판은 보다 학문적인 논리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먼

저 주자가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 古經을 의심하고 고증에 불철저하였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朱子는 『詩傳』에서 『詩經』의 <鄭風> <衛風>이 모두 음란한 시라고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자가 말한 '放鄭聲'의 의미가 가사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나라 음악을 금하라는 것인데도 이를 주자가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열하일기』 중 <避暑錄> <盡業記> <銅蘭涉筆>같은 글에는 청조 문예관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역대 문학교류에 관한 것으로 崔致遠·李齊賢·金尙憲 등 중국 쪽에 알려진 우리나라 문인들의 시와 아울러 蘇東坡 등 중국인이 조선과 관련하여 지은 시를 그에 얽힌 일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全唐詩』 『明詩綜』 등 청조에 들어와 간행된 시선집 중 조선과 관련되는 내용상의 오류를 연암이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그의 실사구시적인 학문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올바른 조선관을 심어주려는 그의 주체적인 세계관의 자연스런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국내의 柳得恭·李德懋·羅杰의 시들을 중국에 알리는 한편 潘庭筠·郭執桓 등 연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중국 문인들의 시와 아울러 청조 시단의 최근 작품들도 소개하고 있다.

연암이 이와 같이 중국의 문물들을 두루 견문하고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늘 견지하고 있었던 태도는 주체적인 세계인식의 자세였다.<sup>3)</sup> 그는 중국의 발달한 문물을 보면서 늘 그것을 조선 현실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고,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면서도 그들에게 배울 곳은 과감하게 배우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다. 연암에게 있어 복학은 중국을 추종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인식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면모를 <鵠汀筆談>에서 중국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부러 地轉說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데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늘은 둥글지만 땅은 모가 나며, 하늘은 돌지만 땅은 정지해 있다는 우주관에 근거해 성립된 중국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해 지구는 둥글며 돌고 있다는 학설을 일부러 소개한 것이다. 中國 中心主義的인

3) 연암의 중국문화 체험 자세가 주체적이었음은 林煥澤교수가 명쾌하게 지적한 바 있다. 임형택, 「박지원의 주체의시과 세계인식」, 『실사구시의 한국학』(창자과비평사, 2000), 144~149쪽 참조.

天下觀을 극복하는 데는 이 地轉說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연암이 종래의 천문관은 잘못된 것이며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자, 중국 사람들은 이 주장을 놀라운 학설로 받아들인다. 연암은 중국의 발달한 문물이나 선진지식은 겸허하게 배우되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썼다. 그의 연행 목적은 단지 중국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조선 현실을 올바르게 개혁할 역사적 전망을 확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하일기』에는 선진문물을 두루 배워 당시의 낙후한 조선 현실을 개혁하려는 이용후생의 실학정신과 주체적인 세계인식의 자세가 일관되게 견지되어 있다고 하겠다.

### 3. 최근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동향

위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탁월한 문인 연암 박지원의 중국접촉기록을 통해서 한국 선비들의 중국문화수용 자세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 3장에서는 역으로 최근 중국의 학자들이 한국문학을 어떻게 바라보며 연구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어보기로 한다. 본 발제자는 200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국문학사에 대한 대학원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1년간의 중국 체류 중에 산정한 한중문학 관련 중국측의 논저 몇 편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먼저 올해(2001) 1월 11일 北京大學 國際正大中心에서 출판기념회<sup>4)</sup>를 열었던 북경대학 명예교수 韋旭昇의 『韋旭昇文集』(6책)5)을 소개한다. 올해 74세를 맞이한 중국의 대표적 원로 한국문학연구자의 저서와 논문을 망라한 이 문집은

- 
- 4) 열흘 전인 12월 12일에 동국대학교 상록원에서 정규복, 소재영, 김태준, 조동일 교수 등 국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외국의 학자로서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한 위옥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집의 출간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다. 조동일은 이 모임에서 발표한 <위옥승문집서평>에서 이 문집이 “국내외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필독서이고, 한중 두 나라 문화교류의 자랑스런 성과이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 5) 韋旭昇, 『韋旭昇文集』(全6冊), 中國 中央編譯出版社, 2000.

그동안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朝鮮文學史』와 『抗倭演義(壬辰錄)研究』, 『中國文學在朝鮮』을 수정 보완한 저서들과 한국문학을 연구한 개별 논문과 단평, 고적 정리, 창작, 번역물들을 담고 있다. 이 문집 중에서 한중문학의 접촉과 교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책이 『中國文學在朝鮮』이다. 이 책은 한국의 문학이 중국문학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고 중국문학의 성취를 어떻게 소화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 작품의 수입과 전파 (2) 문학양식의 채용과 거울로 삼음 (3) 작품의 변형과 가공 (4) 주제, 제재, 이야기, 구성의 모방과 재현 (5) 문학작품 인물의 개입 (6) 예술수법의 도입과 재생 (7) 사상, 기풍, 유파의 침투와 습용 (8) 어휘, 문체, 전고의 흡수와 사용 (9) 배경의 차용과 의탁 (10) 문학비평의 이용 등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한국문학의 중국문학의 흡수와 이용 양상을 이 책만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서는 국내외 통틀어 드물지 않나 생각된다.

더구나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인의 입장이면서도 일방적으로 중국문학의 영향만을 강조하려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창의적 발전에도 주목함으로써 객관적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학자적 양식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는 한국 문학에서의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임에는 全般的 踏襲方式과 接受誘發方式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문학은 全般的 踏襲方式을 통해 4, 5, 7言詩, 詞, 辭賦, 抒情 혹은 敘事 散文, 傳奇, 小說 등의 체제를 수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接受誘發方式을 통해 중국문학의 추세와 기풍, 유행 사조를 접하여 그 영양분과 동력을 받아들이고 민족 본연의 향토문학으로서의 체제와 특징을 두루 계승하여, 독자적인 민족언어의 문학체제를 건설하였다고 하고 있다.

재중 조선인 학자들의 한중문학 비교논문을 묶은 金柄珉 主編의 『朝鮮文學的發展與中國文學』<sup>6)</sup>에는 고대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한국문학의 발전에 끼친 중국문학의 영향을 탐색하는 글이 17항목에 걸쳐 실려 있다. 통일신라 시기의 崔致遠과 唐詩의 관계, 고려시인과 李白, 杜甫, 陶淵明, 蘇軾의 관계, 조선시대에는 稗說文學과 太平廣記, 軍談小說과 三國志演義, 고전소설의 서사방식과 중국사전의 전통의 관계를 다룬 논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한중교류 전반을 다룬 陳尙勝의 『中韓交流三千年』<sup>7)</sup>인

6) 金柄珉 主編, 『朝鮮文學的發展與中國文學』, 中國 延邊大學出版社, 1994.

데, 이 책의 제6장에는 중한 시가문학의 교류, 중한 산문문학의 교류, 중한 사부문학의 교류, 중한소설문학의 교류가 검토되고 있는데, 비교적 간략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한국문학이 외래문학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자기 민족의 전통과 잘 결합하여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였다는 비교적 온당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여름(2000. 7. 31~8. 1) 중국 연변대학에서 있었던 한국한문학회 및 재중조선한국문학연구회 공동주최 “한국문학과 한문학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上海學者 吳紹九의 <中韓三都賦 比較><sup>8)</sup>를 소개하려 한다. 발제자가 이 논문을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중국학자들의 한중문학 비교연구가 대개 영향과 수용의 탐색을 주로 한데 비해, 吳紹九의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賦작품을 대비시켜 서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비연구의 모범적 사례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은 西晉 시대의 유명 문인 左思의 三都賦와 高麗 시대 崔滋의 三都賦이다. 이 연구자는 두 작품의 창작동기와 창작규모, 내용과 창작방법의 차이를 철저히 서로 견주어 분석함으로써 左思의 三都賦는 雄渾壯麗한 풍격을 이룩하였고 崔滋의 三都賦는 典雅清麗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동일한 제재와 문학양식을 사용한 한중의 문인들은 각기 독특한 심미적 정취를 이룩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학작품을 대등하게 놓고 平行比較를 한 이 논문의 의의는 적지 않을 것이다.

#### 4. 결어 : 주체적 세계화의 길

본 발제자는 우리 문학과 중문학 나아가 다른 외국문학과와의 교류와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연구성과와 함께 최근 우리 나라에서 나온 연구성과 중의 하나인 趙東一의 저서 『하나이면서 여럿인

7) 陳尙勝, 「中韓文學藝術的交流」, 『中韓交流三千年』, 中國 中華書局, 1997.

8) 吳紹九, 「中韓三都賦 比較」, 『韓國文學과 漢文學』 국제학술세미나발표논문집, 중국 연변대학, 2000.



『동아시아문학』<sup>9)</sup>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 실린 <한시가 갖고 다른 양상>이란 논문도 우리에게 앞으로의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를 주기 때문이다. 조동일은 우리문학사 중 樂府詩에 특히 주목하여, 그것이 중국, 한국, 일본, 월남에서 어떻게 서로 넘나들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동아시아문학이라는 넓은 전장에서 고찰하고 있다. 조동일은 중세시대에는 중국의 한시가 중심에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었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이행기 문학의 새로운 움직임에서는 중국이 중심부 노릇을 하지 못했으며 한국, 일본, 월남은 중국 악부를 수용하되 한시의 오랜 규범을 혁신하면서 다양한 악부시를 개척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즉 중국 한시는 정격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근대에 들어서 白話詩 운동으로 넘어가지만, 한국은 小樂府, 詠史樂府, 紀俗樂府를 활발하게 창작하였고, 일본도 翻譯樂府, 詠史樂府, 紀俗樂府를 지었지만 특히 狂詩라고 불리는 戲作樂府를 즐겨지었고, 월남은 주로 紀俗樂府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의 또 다른 면모라는 것이다. 조동일의 이러한 구상과 전망은 앞으로 후속 세대들의 지속적 연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증되겠지만, 해외문학과 한국문학의 바람직한 관계와 그 연구에 관심을 갖는 우리로서는 우선 그 문제제기의 참신함과 연구시야의 확대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교류와 관계양상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동일이 보여준 것과 같이, 연구 시야의 확대와 연구 방법의 예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문학 그리고 세계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외국문학과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국내 연구자들의 방법론적 쇄신과 연구능력의 제고가 요청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는 이제 우리 한국문학 연구자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열린 시야로 세계문학의 풍부한 문학적 자산과 그것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외국 학자들과 대등한 학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에 대한 소양을 쌓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문학에서 받아들일 것은 진취적 개방성을 가지고

9) 趙東一,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그 정수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문학의 독창적인 성취와 미적 특질을 세계보편적인 방법론과 논리에 담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우리 한국문학의 주체적 세계화의 길일 것이다.

앞으로 한중 양국간의 문학적 교류를 보다 한 차원 높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영향연구와 함께 양국문학의 공통성과 특성을 해명해낼 수 있는 대비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중문학의 교류와 영향은 객관적으로 해명하되 어디까지나 한 문화의 다른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적 발전을 전제하면서,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줄 것은 주는 '주고 받으면서 서로 배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리라 본다.

<Abstract>

## Encounter between Korea and China in Hanmun Literature

Kim, Young

This thesis deals with the cultural encounter in Hanmun Literature(韓國漢文學). In tradition period Chinese culture have influenced on Korean culture. But recently Korea export many products to China. I think that the background of influence and import is admiration for development. As a example I mentioned on Park Ji-won(朴趾源)'s China Journey Diary(熱河日記) in 1780. He endeavoured on learning developed Ching(清) dynasty culture, but he had a wisdom to select the necessary culture and literary works needed in Korea. We must learn the open mind and critical wisdom in Park Ji-won(朴趾源)'s experience to exchange culture and literat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thesis conclude that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ase on the spirit of inter-esteem on the other culture in coming ages.